

민주, 지지도 높고 후보 몰려 여유 국민의당 “인물선거…판세 유동적”

뉴스 초점

지방선거 6개월 앞

6·13 지방선거를 6개월 남겨둔 현 시점에서 기분이 좋은 쪽은 분명 더불어민주당이다. 취임 7개월 차에 접어든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 국민의 높은 지지는 여전하고 당 지지도 역시 국민의당을 압도한다는 점에 있다.

반면 국민의당은 현재 극한상황에 내몰렸지만, 여전히 지방선거 승리를 다짐하고 가능성 또한 작지 않다고 여기고 있다. 바른정당과의 통합론이 가져온 분열은 연내 수습될 것이고 어차피 지방선거는 당 지지도로 갈리는 게 아니라 후보자의 참신성과 역량, 인지도, 정책 등으로 판가를 내는 ‘인물선거’라는 판단에서다. 나아가 민주당 일당 독주보다는 호남 발전과 한국 정치 발전을 위해서 지역민들이 국민의당 생존 조건인 ‘지방선거 승리’를 견인해줄 것이라는 기대 또한 작지 않다.

◇현재 판세는 = 6개월여 남은 지방선거 판세는 민주당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있다. 이는 정당별 지지도와 시·도지사 후보군에 오른 정당별 입지자의 수만 보더라도 집적이 가능하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시·도지사 후보군에 오른 정당별 입지자 수만 보더라도 현 상황이 민주당에 유리한 국면임은 부정하기 힘들다.

일단, 지방선거를 6개월 남겨 둔 현재 출마를 공식 선언했거나 강력한 출마의사를 표명한 후보는 민주당의 경우 광주시장 후보군에 강기정·민형배·윤장현·최영호(이

민주당 유리한 고지 선점

국민의당 내홍 결과 변수

상 가나다순) 등 4명이다. 자전타전으로 이름을 올려둔 후보들까지 포함하면 최소 8명에 이른다. 전남지사 후보에도 노관규·이개호 등 입지자들이 강력한 출마의사를 보이고 있다. 반면 국민의당은 광주시장 후보에 김동철·장병완, 전남지사의 경우 박지원·주승용 등 각각 2~3명에 불과할 정도다. 하마평에는 이름이 오르내리지만 선거를 6개월 앞둔 지금까지도 강력한 출마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사람들은 실제 출마가 제한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같은 판세 분석에 대해 국민의당은 동의하지 않으며, 또한 개의치 않는 분위기다. 대선과 달리 지방선거가 당 지지도가 아닌 인물 간의 대결로 치러진다는 점에서 국민의당은 여전히 상황을 나쁘게만 보지는 않고 있다. 대중적 인지도와 정치경험, 조직력 등 어느 면에서나 민주당 후보에 뒤지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율은 적폐청산을 바라는 지역민의 열망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남은 6개월 내내 지속하지 않을 것이며, 그동안 상황을 반전시킬 기회가 최소 1~2차례는 찾아 올 것이란 기대도 있다.

◇최대 변수는 = 남은 기간 최대 변수는 지방선거 전 전개개편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지난 10월부터 시작된 국민의당 내홍이 어떤 결과로 얼마나 빨리 수습되는가에 따라 민심의 향배가 뒤바뀔 가능성

이 크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당 내에서는 연내 내홍 수습 가능성을 점치는 의원들이 적지 않다. 안철수 대표가 바른정당 내부 사정으로 이달 중 통합에 관한 분명한 입장을 내놓아야 할 형편에 놓였는데, 당내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일단 통합 중단을 선언하고 연초부터는 당이 지방선거 모드로 급속히 재편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호남을 제외한 지역에서의 선거연대는 선거 막판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으로 의원들은 전망하고 있다.

국민의당으로선 당 내홍이 수습된 후 국회에서 제3당으로서의 존재감을 보여주고 인재영입에 사활을 건다면 적어도 호남에서의 지방선거 승리는 노려볼만하다는 인식이 짙게 깔려있다.

반면 민주당 입장에서 공천 과정에서의 잡음이 최대 변수다. 대통령과 당에 대한 높은 지지율 탓에 ‘예선이 본선’이라는 시각이 팽배한 상황에서 흑심이 불거질지도 모를 공천 관련 파열음이나 각종 사건 사고가 없다면 지방선거 승리를 낙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남은 기간 정부·여당이 실정 없이 현 지지율을 이어갈지, 국민의당의 내홍이 언제 어떤 결과로 수습될지가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며 “특히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지역민들이 많은 가운데 이들이 민주당에 그대로 힘을 실어줄지, 아니면 국민의당을 선택한 후 협력과 견제를 당부하며 호남의 발전을 이끌어낼 것인가 관련”이라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자선냄비 거리모금 10일 광주시 동구 충장로 광주우체국 앞에서 한 어린이가 자선냄비에 성금을 기부하고 있다. 올해 구세군 자선냄비 모금액 목표는 광주 1200만원이다. 전국 목표 모금액은 140억원이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최강 한파…눈 15cm 내린다

광주·전남 내일까지

최저기는 영하 4도 ‘뚝’

12일까지 광주·전남지역에 최대 15cm의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11일 광주·전남지역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확장한 차가운 대륙 고기압과 서해상에서

해기차(해상과 지상의 기온차)로 만들어진 눈 구름대의 영향으로 12일까지 눈이 내릴 전망이다. <관련기사 7면> 예상 적설량은 나주와 화순 등 광주·전남 내륙에 3~10cm, 무안과 영광 등 전남 서해안에 5~15cm로, 기상청은 일부 지역에서는 5~10mm 내외의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또, 광주의 최저기온이

영하 4도까지 떨어지는 등 대부분 지역의 최저기온이 영하 1도~영하 7도까지 내려가고, 최고기온도 영하 2도~영하 3도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특히 14일에는 전 지역이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고 찬 바람도 매서워지면서 답양과 화순, 구례, 곡성의 최저기온이 영하 9도까지 내려가고 광주도 영하 4도를 기록하는 등 광주·전남 모든 지역의 최저기온이 영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광주 7대 문화권→5대 문화권 재조정

문화전당권·양림동 아시아문화교류권 통합

문화경관·생태환경보존권 시 전체로 확대

광주시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핵심인 7대 문화권 가운데 공간적으로 인접한 구도심 일대 ‘문화전당권’과 남구 양림동 일대 ‘아시아문화교류권’을 ‘문화전당·교류권’으로 통합하기로 했다. 또 무등산, 영산강, 광주로 일대로 설정된 ‘문화경관·생태환경보존권’의 권역을 시 전체로 확대한다.



7대문화권 사업의 연구 용역을 맡고 있는 (사)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지원포럼은 지난 8일 오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기존 7대 문화권을 5대 문화권으로 재설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7대문화권 조성사업 수정계획 연구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광주시, 시의회, 자치구, 유관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보고회에서 발표를 맡은 정성구 도시문화집단CS 대표와 김기곤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광주시 차원의 도시공간계획이나 전략산업과 결합력이 낮아 5대문화권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과를 얻었다”고 설명했다. 먼저 ‘문화전당·교류권’은 광주공원과 광산구 지역을 포함하고, ▲문화전당·창·

제작 콘텐츠 생산기반 강화 ▲5·18 및 문화다양성 가치 문화적 재현 ▲문화전당권과 기존 문화교류권을 포함하는 교류사업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권고했다. ‘아시아문화교류권’(광산구 비아동 일대)의 경우 ‘융합문화과학관’으로 명칭을 바꾸고, 송암·하남·소촌산단을 추가했다. ‘아시아전승문화권’(남구 칠석·대촌·효천 일대)은 ‘아시아공동체문화권’으로 변경하고 제봉산 편백림, 포충사를 추가했다. ‘교육문화권’(서구 마북동 일대)은 ‘미래교육문화권’으로 명칭을 조정하고, 미래세대들의 혁신적 교육실험 공간 조성을 목표로 하되 공공 탄약고 이전을 전제로 장기 과제로 추진하도록 권고했다. ‘시각미디어문화권’은 명칭과 지역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시각미디어예술을 대표하는 광주비엔날레 기반 확대 ▲문화예술의 일상화를 위한 종합체험 공간 조성 ▲미래세대를 대상으로 한 전문문화예술교육 공간 조성 등을 추진하도록 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안철수 “중진들 갈등 표출 바람직하지 않다”

광주서 바른정당과 통합 강조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9일과 10일, 이틀째 광주와 전남을 돌며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통한 당외연 확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일부 지역에선 강한 반발도 있었지만, 안 대표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바른정당과의 통합론을 거듭 강조하며 당원 설득에 ‘올인’했다. <관련기사 3면> 안 대표는 10일 조선대에서 열린 ‘연대·통합 혁신을 위한 당원 토론회’에서는 통

합에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강력 반대하는 호남 중진들을 직접 공격하기도 했다.

안 대표는 “과거 수많은 3당이 사라진 이유는 하나”라며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외연을 확장하지 못했을 때 그 정당은 사라지고, 외연을 확장했을 때는 선거를 이기고 위기를 넘긴다”라며 외연 확장을 위한 바른정당과의 통합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번 지방선거를 제대로 치르지 못하면 (국민의당이) 다른 정당처럼 예외

없이 사라질까 그것이 두렵다”면서 “당 대표의 책무는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번 선거를 잘 치르고, 국민의당이 살아남고 다당제가 유지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 대표는 “국민들은 싸우는 정당에 눈길을 주지 않는다”면서 “중진들이 밖으로 갈등을 표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호남 중진들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최현일기자 cki@kwangju.co.kr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HNT 하나투어

무안 공항

추천여행 ①
캄보디아/앙코르왓
추천여행 ②
베트남/하노이

하나투어 프리미엄로드샵 광주 총장점 062)228-1199

무안공항출발 해외여행!

나는 더 편하게, 더 다양하게 떠난다!

하나Pack 캐주얼 AVPF10_VJ1

하롱베이 비경관광 포함
하노이·하롱베이·엔프 5일

총 상품가격 799,000원~
현지지불 : 가이드+기사경비 \$40~ / 선택경비 있음

🕒 17년 12월 30일~18년 1월 31일
➡ 비엠펙항공(VJ항공)
🎁 치맥야식제공, 무제한 생수서비스, 특식3회(오삼불고기, 락비엠펙스테이크, 노니보쌈정식)

하나Pack 클래식 ARPF01_ZA1

VIP 급행비자 포함
앙코르왓 4일·5일

총 상품가격 849,000원~
현지지불 : 가이드+기사경비 \$40~ / 선택경비 있음

🕒 17년 12월 30일~18년 1월 27일(매주 수, 토)
➡ 스카이앙코르항공
🎁 앙코르토크톡 투어, 특식 3회(쌈밥정식, 디너뷔페, 수끼)

■[여행상품 가격포함내역]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안전보험료, 관광진흥기금, 운송/숙박/식사요금, 여행자보험료, 현지관광입장료 등 반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모든 경비 포함임. 개별여행상품은 미적용. ■[유류할증료] 유류할증료는 여행상품 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며, 발권일, 항공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함.■[가이드경비] 가이드경비는 상품에 따라 여행상품가격에 포함 또는 불포함될 수 있으며 불포함시 현지에서 별도로 경비를 지불하여야 함.■[지재한 내용은 일일표 및 홈페이지 www.hantour.com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택경비] 현지에서 고가의 선박에 대한 자유항에 선택관광에 참여가능하여 그에 따른 선택경비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선택관광 미참여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지재한 내용은 일일표 및 홈페이지 www.hantour.com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유한 시정에 의해 여행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여행자의 사전 동의를 받습니다. ■ 관광사업자 등록번호 제26004-1993-6 (종로구청)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5길 41 하나투어 빌딩 (여하나투어 ■ 최소 출발인원 10명 기준/ 호텔 2급호텔 이상 2인 1실/교통편 항공/버스/패키지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객창원/불편함수 Tel 1577-1233(ARS 안내번호 0번) ■영입 보증보험 22억, 1천만원 가입 ※ 항공권 또는 항공권을 포함 상품과 상품가격에는 유류할증료와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유가와 환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품에 따라 선택경비가 발생될 수 있으며, 선택경비는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지불할 수 있습니다. 선택경비의 금액 및 선택관광 미 선택 시 대체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hantour.com)를 참조해 주세요. 해외 안전 여행 단계별 국가 지정 현황 1 ●여행 유의 2●여행 자제 3●철수 권고 4●여행 금지

H 여행, 하나면 돼! 하나투어에서 확인하세요.

| 런던증권거래소 상장기업 |